

심청가→ 심청전

-조선 시대 관객들 앞에서 공연되었으며, 광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판소리 사설이다.
이후 고전 소설 '심청전'으로 정착된다.

-소재: **봉사**(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 **효녀**(부모님께 선한 도리를 다하는 딸),
공양미(절에 바치는 쌀), **제물**(제사 지낼 때 바치는 물질), **용궁**(바닷속 왕궁),
고진감래(苦 쓰다 고, 盡 다하다 진, 甘 달다 감, 來 오다 래)

-인물 소개

심청: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심 봉사의 딸로 태어난다. 효성이 지극하여 눈먼 아버 심 봉사의 눈을 뜨게 하려고 인당수 제물이 된다. 이후 황후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다 하늘 위로 올라간다.

심학규(심봉사): 심청의 아버지. 눈이 먼 봉사로 곤궁한 삶을 살아가나 딸 심청의 효성으로 눈을 뜨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곽씨 부인: 심청의 어머니. 심청을 낳고 7일 만에 죽은 뒤 하늘 나라의 옥진 부인이 되어 용궁에서 딸 심청과 재회한다.

뽕덕어멈: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진 후 심봉사와 결혼, 못된 부인의 대명사

-심청가(심청전) 줄거리

황해도 도화동에 심학규라는 봉사와 곽씨 부인이 살고 있었다. 기이한 태몽을 꾸고 아이를 갖게된 곽씨 부인이 딸 심청을 낳고 7일 만에 죽는다. 심 봉사는 어린 딸을 젖을 얻어 먹여 키우고, 심청은 자라서 눈먼 심 봉사를 지극한 효성으로 돌본다. 어느 날 물에 빠진 심 봉사는 자신을 구해 준 몽은사 중(스님)이 공양미 300석을 부처에게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하자 그 말을 믿고 그러기로 약속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심청은 상인들의 인당수(바다) 제물로 자신의 몸을 팔아 공양미 삼백 석을 몽은사로 보내고 심 봉사와 이별한다. 인당수에 이르러 몸을 던진 심청은 용왕에게 구출되어 어머니 곽씨 부인을 만나고, 이후 연꽃 속에 들어가 다시 세상으로 떠오르게 된다. 뱃사람들이 연꽃을 신기하게 여겨 임금에게 바치자 임금은 그 속에서 나온 심청을 아내로 맞이한다. 황후가 된 심청은 아버지 심 봉사를 그리워하여 맹인(봉사) 잔치를 벌인다. 이 소식을 듣고 온 심 봉사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심청과 만나 눈을 뜨게 된다.

심청 부녀의 비참한 삶→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당시 서민의 삶을 표현

심청이 황후가 되는 신분상승, 경제적 풍요 → 자기희생의 보상, 서민의 꿈

춘향가→ 춘향전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된다.

출판 종류가 무려 120여 종에 이를 정도로 조선 후기에 인기를 누렸던 작품이다.

-소재: **주막**(서민들의 여관과 식당), **주모**(주막의 여자 주인), **사또**(마을의 수령),
암행어사(왕의 명령을 받아 지방관리들을 비밀 감시),
과거(나라의 고위 관직에 오르기 위한 시험), **장원급제**(시험에 대상 합격)
어사출두(신분을 숨기던 암행어사가 잘 못된 민정을 바로잡기위해 정체를 들어 냄)

-인물 소개

춘향: 유교적 이념에 충실하여 정절을 지키는 여인으로,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어 사랑을 성취하려는 아주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인물이다.

이몽룡: 처음에는 미숙하고 철없는 도령이었지만, 춘향과 이별한 후에 성숙하여 사랑의 약속을 지키는 의리 있는 인물로 변모한다.

변학도: 어리석고 험오와 웃음거리의 대상이 되는 인물로, 부패한 탐관오리, 지방 수령이다.

월매: 기생 출신 춘향의 엄마. 수다스럽고 능청스러우며, 현실적 이해타산에 민감한 인물이다.

방자: 이몽룡의 노비, 양반을 풍자·우롱하면서 작품에 활기를 불어넣어 소설의 재미를 더하는 인물이다.

향단: 춘향의 노비. 춘향-이몽룡, 향단-방자 연애구도

춘향전 줄거리

성 참판과 늙은 기생 월매 사이에서 태어난 춘향은 뛰어난 미모와 재주를 지녔다.

남원 **사또의 아들** 이몽룡이 **광한루**에 구경 나왔다가 그녀를 타는 춘향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날 밤 춘향의 집을 찾아간다. 이몽룡은 춘향이 엄마 월매에게 춘향과의 결혼을 맹세하고 둘은 사랑에 빠진다. 그런데 이몽룡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가게 되어 둘은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된다. 새로 남원에 온 **변학도 사또**는 춘향에게 수청 들 것을 강요한다. 춘향은 죽음을 무릅쓰고 변학도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형장(벌로 맞는 매)을 맞고 감옥에 갇힌다.

한양으로 올라간 이몽룡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전라도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온다. 이몽룡이 거지꼴로 변장하여 춘향의 집을 찾아가나 월매가 푸대접하고, 감옥에 있는 춘향은 절망에 빠져 자기가 죽으면 장사를 잘 지내 달라고 유언을 남긴다. 이몽룡은 변 사또의 생일 잔치때 각 읍 수령이 모인 틈을 타 **어사출두**를 한다. 어사또(이몽룡)는 변 사또를 해고하고, 춘향은 월매와 더불어 크게 기뻐한다. 어사또는 춘향을 데리고 한양으로 가서 부부로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춘향과 이몽룡의 연결 → 춘향이 사대부와 혼인하여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고 싶은 서민들의 희망**

수궁가→토끼전(별주부전)

-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가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된다.

- 소재: 수궁(용궁, 물속 왕궁), 용왕(수궁의 왕), 꾀(지혜),

별주부(별은 자라, 주부는 이야기 속 수궁의 낮은 군인 신분), 벼슬(나라의 관직, 일자리),

감언이설(감달다 감, 흘말 언, 레이롭다 리(이), 說말하다 설), 조롱(비웃거나 무시함)

-인물 소개

토끼: 이기적인 면이 있으나, 지혜롭고 능청스러우며 침착하다.

부귀영화를 탐내는 서민을 나타낸다.

자라(별주부): 우직하며 충성심과 공명심이 강하다. 지배층 낮은 무관의 무능함을 나타낸다.

용왕: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이기적이고 권위적이며, 세상 물정에 어둡고 우둔하다. 왕을 비롯한 높은 지배층의 이기적이고 무능함을 나타낸다.

수궁가/토끼전(별주부전) 줄거리

동해 용왕이 우연히 병이 들었는데 백 가지 약이 소용없었다. 그때 세 명의 도사가 나타나 토끼의 간(간이 약이 된다고 하고, 이에 자라가 토끼를 찾으러 땅 위로 올라 간다. 자라는 토끼를 만나 땅 위에서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수궁에 가면 높은 벼슬을 준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토끼를 유혹하고, 자라의 말에 속은 토끼는 자라를 따라 수궁으로 들어간다. 수궁에 가자마자 용왕은 토끼를 묶고 간을 내놓으라고 한다. 부귀영화를 과하게 욕심 낸 것을 후회하던 토끼는 꾀를 내어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말한다.

용왕은 주변 신하들이 속지 말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토끼의 말만 믿어 자라를 시켜 육지에 데려다 준다. 그러나 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자라를 꾸짖고 조롱하며 숲 속으로 달아난다. 자라는 토끼에게 속았음을 탄식하며 허탈하게 수궁으로 돌아간다. 한편 수궁에서 살아 돌아온 토끼는 경망스럽게 행동하다 독수리에게 붙잡혀 또다시 위기에 처하지만 다시 한 번 꾀를 내어 독수리를 속이고 위기를 모면한다.

이기적인 용왕, 싸움만 하는 수궁 신하들, 자라(별주부)→ 무능력한 정치 지배 계층 비판

부귀영화를 탐내다 죽을 뻔한 토끼 → 돈과 재물을 쫓다가 망한 서민들의 자각